

### 광주 남구 “아리아, 도와줘” AI 스피커 30대 보급

건강 허약·홀로사는 어르신 가정에 설치

ICT 활용 긴급구조 및 감정 모니터링도

“아리아, SOS. 도움이 필요해”  
 광주 남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ICT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 일환으로 홀로사는 어르신 가정에 인공지능(AI) 스피커를 보급, 긴급상황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하고 정서적 안정을 달래는 돌봄 환경 구축에 나섰다.  
 남구는 14일 “지난해 보건복지부 ‘ICT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2억원으로 AI 스피커를 구입해 관내 홀로사는 어르신과 몸이 허약한 주민의 가정에 AI 스피커 30대를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급한 AI 스피커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기술을 활용해 정보 검색은 물론이고 라디오, 음악, 말벗, 날씨, 알람, 긴급 도움 호출 기능을 갖춘 최첨단 기기이다.  
 스피커를 통해 ‘아리아’를 호출하면 푸른 불빛이 켜지면서 평소 궁금했던 것이나 필요한 서비스가 있으면 음성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긴급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스피커에 ‘아리아 살려줘’ 또는 ‘아리아 에스오에스’를 외치면 구청 보건소와 보안 전문업체에 도움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곧바로 전달돼 긴급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AI 스피커를 통해 아리아와 대화도 할 수 있는데, 대화 중 감정 키워드를 분석해 이용 당사자의 행복감과 고독감, 우울감 등 감정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도 할 수 있다.  
 또 기본 기능인 노래를 듣고 싶을 때에는 애창곡 리스트나 인기가수별 노래 모음집이 마련돼 있어 자신이 원하는 노래를 들을 수 있으며, 날씨와 운세에 관한 정보 획득을 비롯해 특정 시간대를 지목해 알람을 요청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이밖에 잠자리 무드등 온·오프와 라디오 및 뉴스 청취, 두뇌 톡톡 등 치매 예방을 위한 콘텐츠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초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관



내 취약계층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모두가 안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돌봄 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윤희기자

### 신안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복지사각지대 틈새 좁혀

복지사각지대 4가구 대상, 20만원 상당 생필품 등 긴급구호물품 전달



유채꽃 향기로 가득한 황금빛 섬 신안군 팔금면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을 발굴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따뜻한 복지행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신안군 팔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강정근)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매월 4가구를 대상으로 20만원 상당의 생필품 등 긴급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방문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방문 상담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소홀해질 수 있는 취약계층에게 수시로 전화 안부

살피기 및 감염병 예방 홍보와 함께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생필품을 지원받은 최강연(94세) 어르신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생일선물을 크게 받은 것 같다”고 하며 “찾아와준 것도 감사한다며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겠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김명렬 팔금면장은 “지역어르신들에게 자식된 역할로 따뜻한 복지, 행복한 신안 복지행정 실현에 적극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덕주기자

### 광양시 봉강면 새마을부녀회, 치매 어르신 집 청소

생활폐기물 정리·청소 등 봉사활동 펼쳐

광양시 봉강면 새마을부녀회와 맞춤형복지팀은 지난 7일 홀로 사는 치매 어르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대상자는 치매를 앓고 있는 독거노인으로, 집 마당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쌓아뒀으며 집 내부는 쥐 배설물로 인해 악취가 나고 위생이 불량해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었다.  
 봉강면 맞춤형복지팀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해 자원봉사를 연계함에 따라 맞춤형복지팀 3명, 봉강면 새마을부녀회 회원 8명 등이 참여해 생활폐기물 정리와 청소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구하고 함께해 주신 봉강면 새마을부녀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옥 봉강면 새마을부녀회장은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통해 독거 어르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며,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허정량 봉강면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

봉강면 자생단체인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어려운 이웃에게 반찬 나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소외된 이웃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으로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다.  
 광양=심종섭기자

### 여주시 “실버세대 어르신 원예활동 체험 참여하세요”

노인복지회관 등 5개 단체 모집

여주시는 노년기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버세대 원예활동 체

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아름다운 꽃과 식물을 매개로 한 원예 체험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은 노인복지회관 등 5개 단체를 선정해 오는 5월부터 반려식물 가꾸기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도심 속 어르신들에게 자연을 접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복지회관 등 단체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로 신청하면 된다.  
 여수=오상호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